민속자료 발굴조사 보고서

수룡동 당산풍어제

■ 저자 김 정 헌

홍 성 문 화 원

수룡동 당산풍어제

홍 성 문 화 원

발 간 사

20세기 한해의 마감을 목전에 두고서 숨겨진 우리 고장의 민속문화를 발굴하여 우리조상의 정신과 얼을 이어 새로운 삶의 지표로 삼고자 계속되는 민속발굴 조사에서 이번에는 수룡동의 당산풍어제를 집중연구하여 작은 책자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민속발굴에 애쓰신 김정헌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숨겨진 고유 민속문화를 찾아내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뿌리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의 깊은 문화의 뿌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려운 세상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정신적 지주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의 문화를 찾아 전승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김정헌 선생님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 12월

홍성문화원장 **이 하 영**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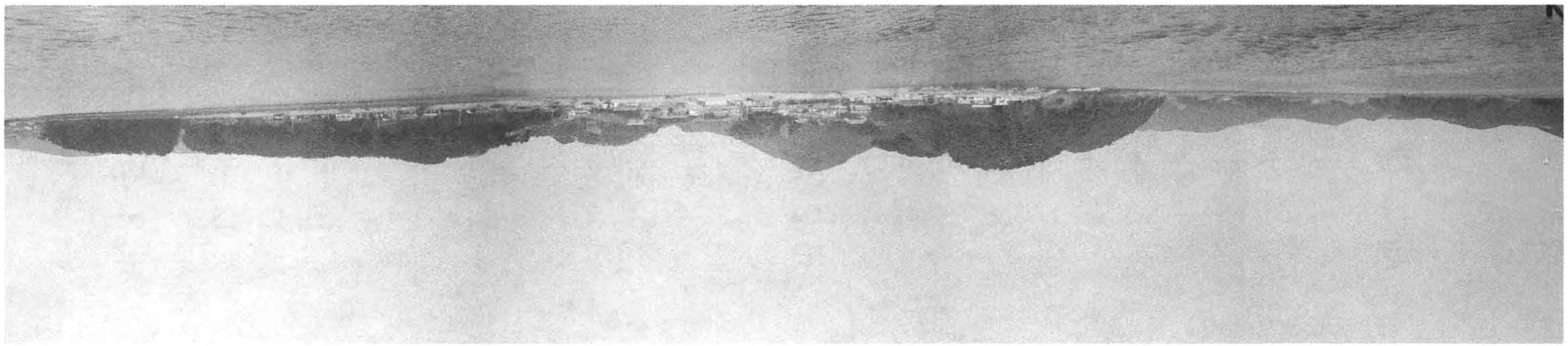
제 1 장 마을의 개관

1. 지명의 유래
2. 지리적 배경
3. 역사 · 문화적 배경
4. 자연 환경
5. 수룡동의 여러지명들
6. 수룡동의 주민 분포
7. 수룡동의 산업
8. 수룡동의 변천사
9. 수룡동과 역사적인 사건
10. 수룡동의 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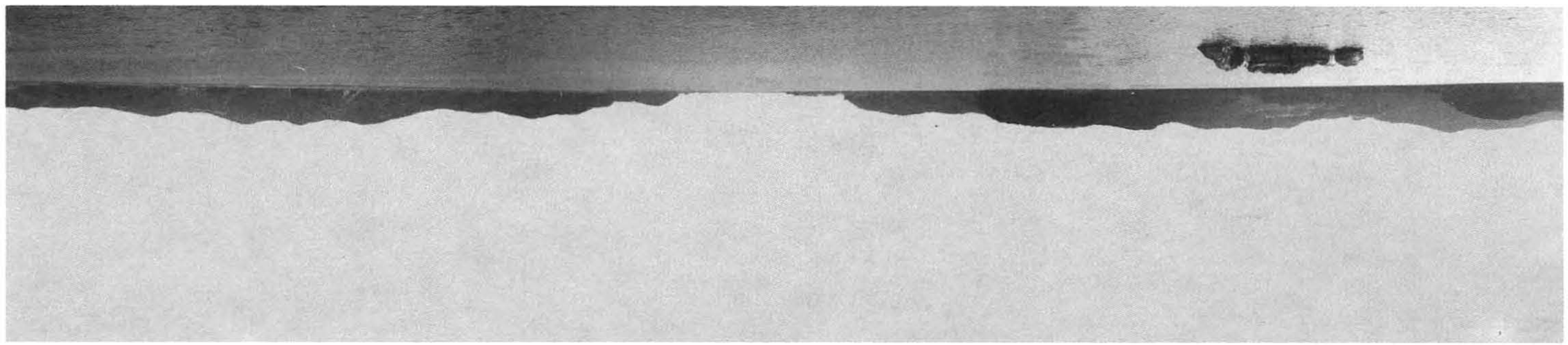
제 2 장 수룡동 당산 풍어제

1. 명칭
2. 신격
3. 당집의 위치
4. 당집의 형태
5. 제의 목적
6. 제일
7. 제의 주관자
8. 금기
9. 제물과 제의 절차
10. 제의 비용과 결산
11. 마을 사람들의 신앙 태도
12. 유래

제 3 장 당산풍어제와 수룡동의 장래



▲수룡동 전경



▲수룡동 앞바다 전경

제 1 장 마을의 개관

1. 지명의 유래

수룡동의 공식 지명은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이다. 판교리는 판교, 신촌, 묵동, 수룡동의 네 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서해안 모산만 해변과 맞닿은 자연 마을이 수룡동이다.

흔히들 수룡동을 수룡구지라고 부른다. 다른 이름으로는 수룡곶, 응용곶, 수음곶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제일 많이 알려진 이름으로는 수룡동 또는 수룡구지이다.

수룡동이란 이름은 마을의 형태가 용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물(水)가에 사는 용(龍)처럼 생긴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수룡동의 원래 이름은 선소였다고 한다. 배를 대는 장소라는 뜻이다. 그러다가 수룡구지(또는 수룽구지)로 바뀌었고, 지금은 공식 지명인 수룡동으로 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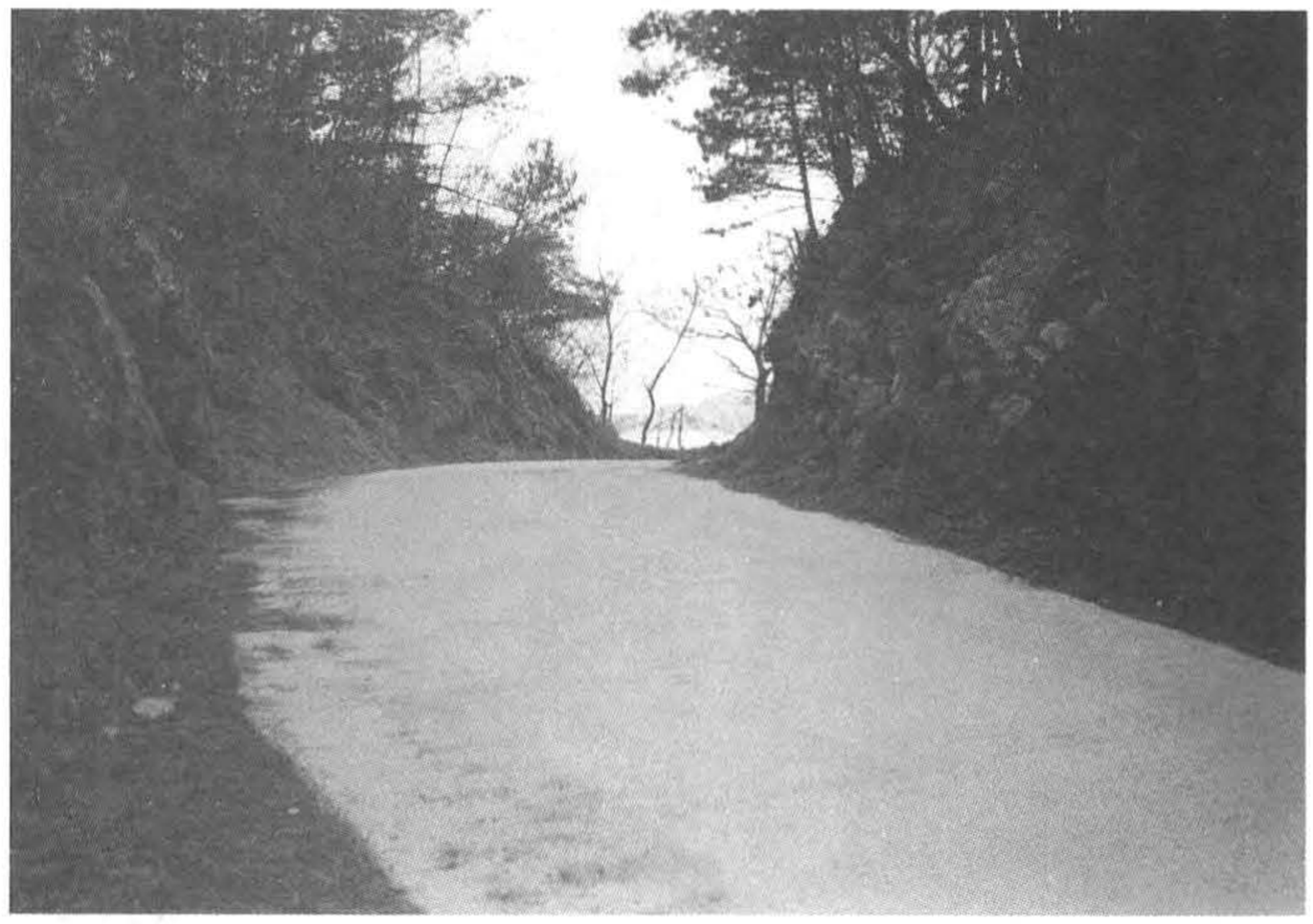
2. 지리적 배경

수룡동은 홍성군 서해안의 천수만 해안가에 자리잡은 조그만 포구 마을이다. 수룡동의 좌·우로는 서부면 남당리와 결성면 성호리 해안과 연결되어 있다. 수룡동 앞쪽으로는 천북면 장은리 앞바다를 통해서 곧바로 천수만(모산만)과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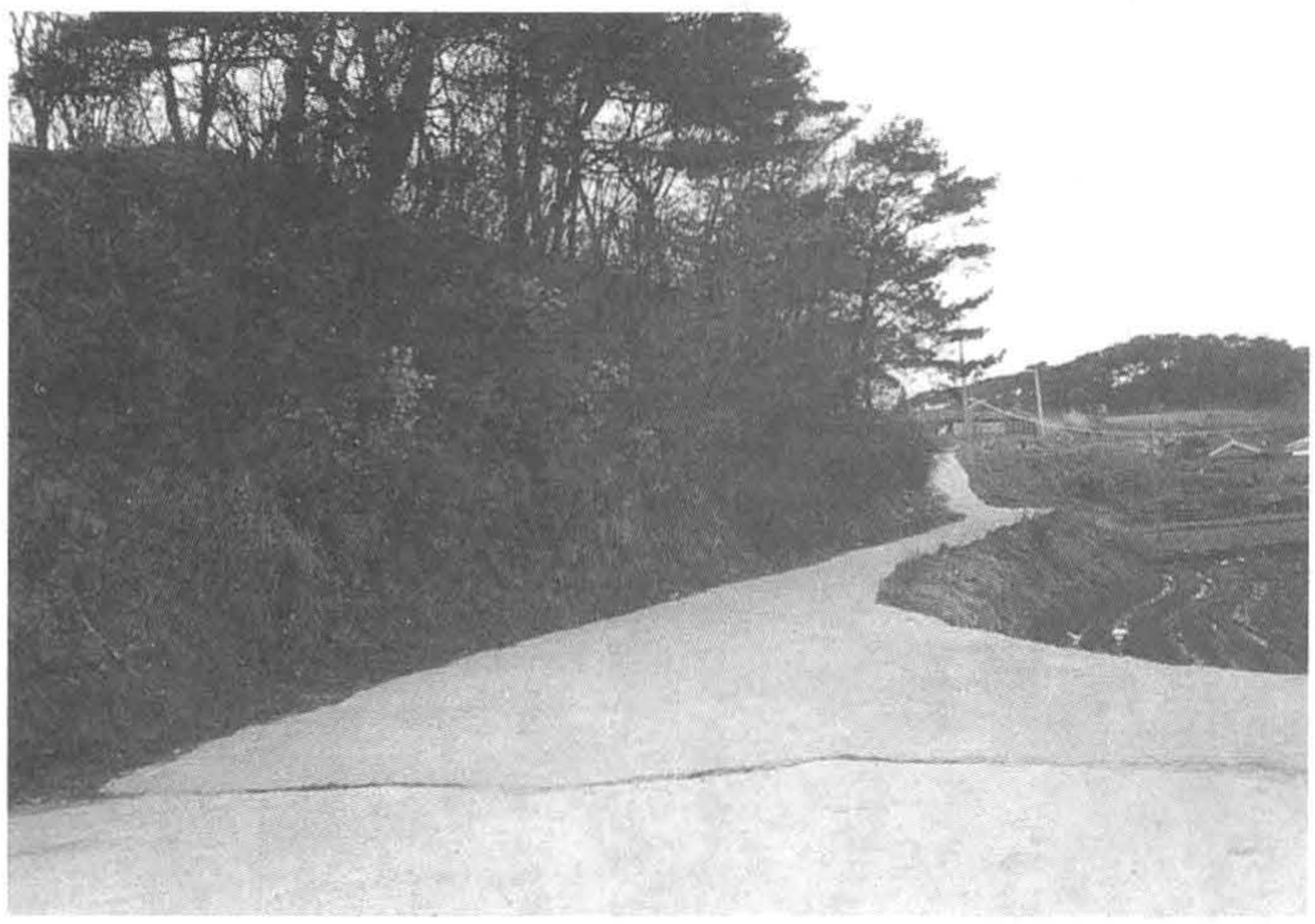
수룡동으로 통하는 길은 육로와 해로 두 가지가 있다. 육로는 서부면 판교리에서 수룡동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는 양쪽으로 고개가 하나씩 뚫려있다. 한쪽은 정기 노선 버스나 대형 차가 드나들 수 있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소형차가 드나들 수 있는 좁은 길이다.

해로는 천북면 장은리 앞바다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다. 장은리 앞바다에서 수문개라고 하는 갯고랑을 통해서 수룡동으로 곧바로 들어올 수 있다. 수룡동에서 바다쪽으로 나오려면 이 통로가 유일한 해상로이다.

▲마을 입구 안내판



▲마을 입구



▲마을 삼거리 입구

▲모신만으로 통하는 입구

3. 역사·문화적 배경

수룡동은 인구의 비례로 볼 때 피난민이 많이 살고 있는 어촌 마을이다. 1·4후퇴 때 이곳으로 피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김관은씨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

지금 기억에 의하면 배 5, 6척 정도였던 것 같다. 배에 탑승했던 인원은 120여명 정도였다. 황해도 웅진에서 가족들을 싣고 출발한 피난선은 무작정 남쪽으로 향했다. 어디라고 정해놓은 곳도 없이 남쪽으로 무작정 항해를 했다. 그렇게 며칠동안 항해를 해서 닿은 곳이 바로 수룡동이었다. 후에 몇십명이 추가로 도착하였다. 모두 약 180여명의 피난민이 수룡동으로 피난을 온 것이다.

이는 당시 수룡동 인구와 엇비슷한 숫자였다. 그 당시 집단으로 서해안가에 피난온 주민들은 수룡동이 제일 많았다. 이를 알고 충청남도청에서도 구호미를 전해주기까지 했다.

북쪽에서 피난온 주민들이 이곳에 도착한 것이 12월 20일 경이었다. 말 그대로 엄동설한이었다. 갑자기 180여명의 피난민들을 맞이한 수룡동 주민들은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집집마다 빈 방이 있으면 피난민들을 위해서 모두 내놓았다. 그렇지만 갑자기 몰려든 피난민들을 모두 수용할 방이 부족했다.

이곳 주민들은 피난민들이 밖에서 추운 잠을 자지 않도록 물심양면 으로 뜨거운 도움을 주었다. 지금 수룡동 뒤에 자리잡은 당산 쪽과 마을 입구 해안도로가에 움막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엄동설한에 땅이 꽁꽁 얼어서 삽질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돌덩이처럼 언 땅을 장작불로 녹였다. 한쪽에서는 장작불로 땅을 녹이고, 한쪽에서는 움막을 지었다.

피난민들은 엄동설한에 춥고 배가 고팠어도 수룡동 주민들의 따뜻한 동포애로 인해서 힘든 피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지금도 이곳으로 피난 왔던 1세대들은 그 당시 주민들이 보여준 따뜻한 배려를 잊지 못하고 있다. 그 후 수룡동은 피난 1세대들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다.

수룡동은 지역과 문화가 다른 남·북한 주민들이 모여서 화합하며 살아가

고 있는 대표적인 바닷가 포구 마을이다. 지금도 토착민들과 피난민들이 마음을 합하여 마을을 지키며 화기애애하게 살아가고 잇는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을에서 누대로 이어오고 있는 풍어제이다.

4. 자연환경

수룡동은 바로 앞에 커다른 호수같은 바다가 있다. 마을 좌우로는 조그만 야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잔잔한 호수같은 인상을 준다. 이 바다는 옆쪽으로 결성면 성호리까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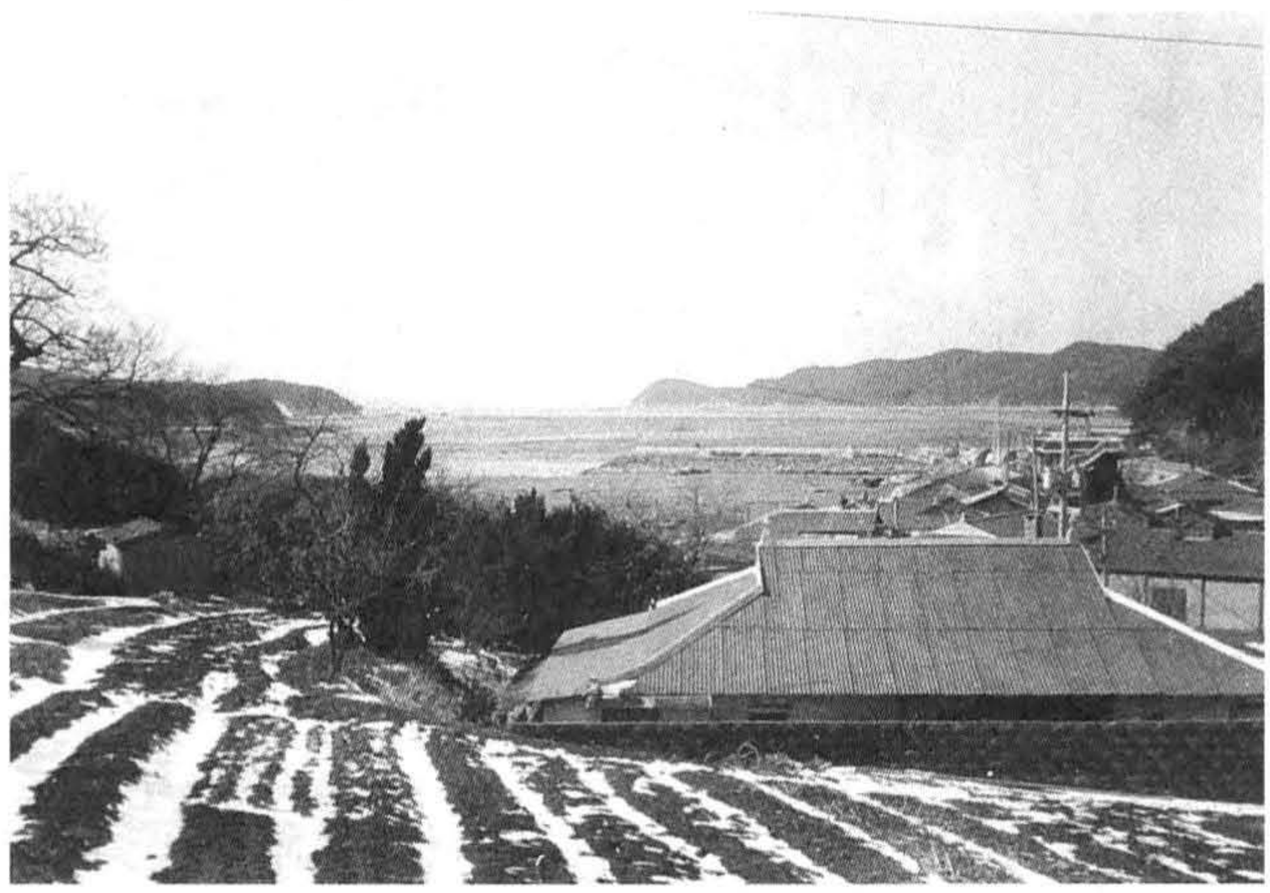
수룡동 앞바다는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김과 굴양식으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오래 전에 서산 A·B지구 방조제를 막고부터는 김양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후로 주 소득원이었던 김양식은 전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마을 앞바다에서 굴양식을 하여 주 소득원으로 삼고 있다.

수룡동 주민들의 또다른 주 소득원은 천수만에서의 고기잡이다. 조그만 동력선을 운영하여 천수만 앞바다에 나가 여러가지 해산물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룡동은 지금, 모든 자연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홍보댐 건설로 인하여 수룡동 포구는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서부면 남당리와 천북면 장은리를 잇는 간척사업이 완료되면, 수룡동 앞바다는 조그만 담수호로 변하게 된다. 수룡동 마을이 조상 대대로 이어왔던 생활터전이 없어지는 것이다.

▲수룡동에 정박중인 선박들



▲노인회관에서 바라본 마을앞 뻘

▲담수호로 변하게 될 수룡동 앞바다 뻘의 모습

5. 수룡동의 여러 지명들

수룡동 마을의 지명으로는 용골, 벗재 너머 고개, 건너 끝 고개, 돌곳, 뻘, 위치둥, 아래치둥, 도랑묘지, 염벗, 농파, 삼굿마당 등이 있다.

용골은 마을 입구 오른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형태가 용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벗재 너머 고개는 마을 안쪽에서 용골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다. 옛날에 마을 앞 바다 뻘에서 바닷물이 나가면 토염을 채취했다고 한다. 이 토염을 채취해서 소금을 만들던 고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안쪽에서 벗재너머 고개를 넘으면 용골이 나온다.

건너끝 고개는 마을 해변 도로를 끼고 성호마을 쪽으로 통하는 고개를 말한다. 이곳은 정기노선 버스가 지나는 고개이다. 이 건너끝 고개와 마을쪽으로 들어가는 해변가 피난민들이 움막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뻘은 마을 앞바다에 바닷물이 나가면 뻘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옛날에 토염을 채취했다고 한다. 이곳을 뻘이라고 한다.

위치둥은 수룡동 앞에 있는 바다를 말한다. 이곳에서 수룡동 주민들은 굴 양식 등 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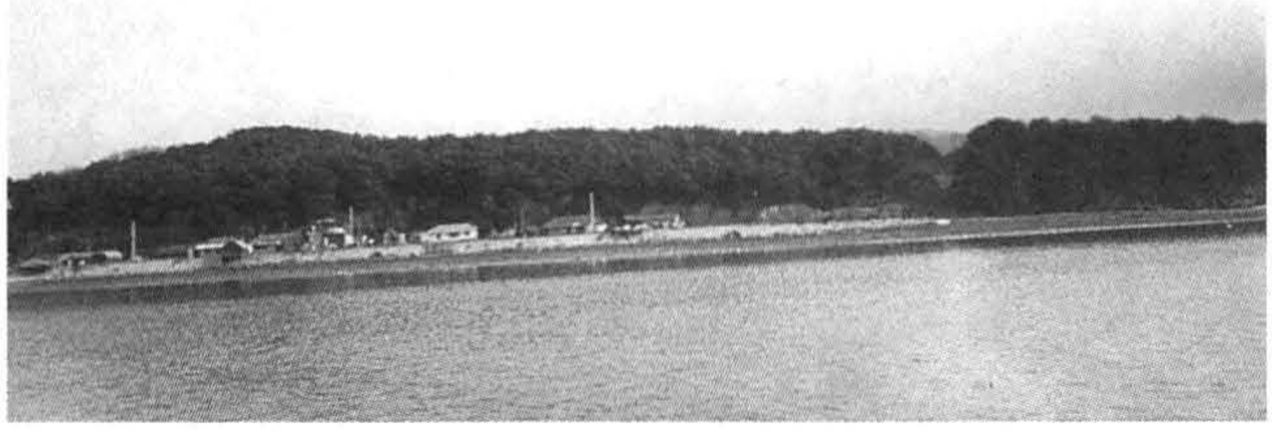
아래치둥은 수룡동 선착장 오른쪽으로 있는 바다를 말한다. 이곳도 위치둥 못지 않게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도랑묘지는 수룡동 뒤쪽에 아담한 솔 숲이 있고 몇 기의 묘지가 있다. 이곳을 도랑묘지라고 한다.

공동마당은 마을 가운데 있는 마당이다. 이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옛날에 공동으로 하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돌곳은 마을 뒤쪽에 있는 당산 너머 마을을 말한다.

▲앞치둥 뻘

▲뻘

▲아래치둥



▲건너끝 고개

▲벗재너머 고개

▲건너 끝고개와 해안도로

▲염벗

▲선착장

6. 수룡동의 주민 분포

수룡동의 가구수는 1970년대 중반에 83호까지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절반 가까이 감소한 상황이다.

『홍성군지』(1980. 12. 15일 발행)에 의하면 총 가구수가 73가구(1979. 10. 1일 기준)였다. 인구는 남자 184명, 여자 205명으로 모두 389명이었다.

그후 10년 후에는 더 많은 인구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홍성군지 증보판』(1990. 12. 31일 발행)에 의하면 총 가구수가 58가구(1989. 12 31일 현재)로 줄어들었다. 이 때의 인구는 남자 99명, 여자 113

명으로 모두 212명이었다.

그후 10여년이 흐른 지금은 더 많은 인구의 감소 현상을 볼 수 있다.

지금(2000. 1. 1일 현재)은 총 가구수 47호에 남자 61명, 여자 74명으로 모두 135명만이 수룡동을 지키고 있다.

주민 분포의 가장 큰 특색이라면 고령화 현상이다. 수룡동의 상업인구 중에서 가장 젊은 나이가 41세이다.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도 겨우 2명이다. 앞으로 수룡동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7. 수룡동의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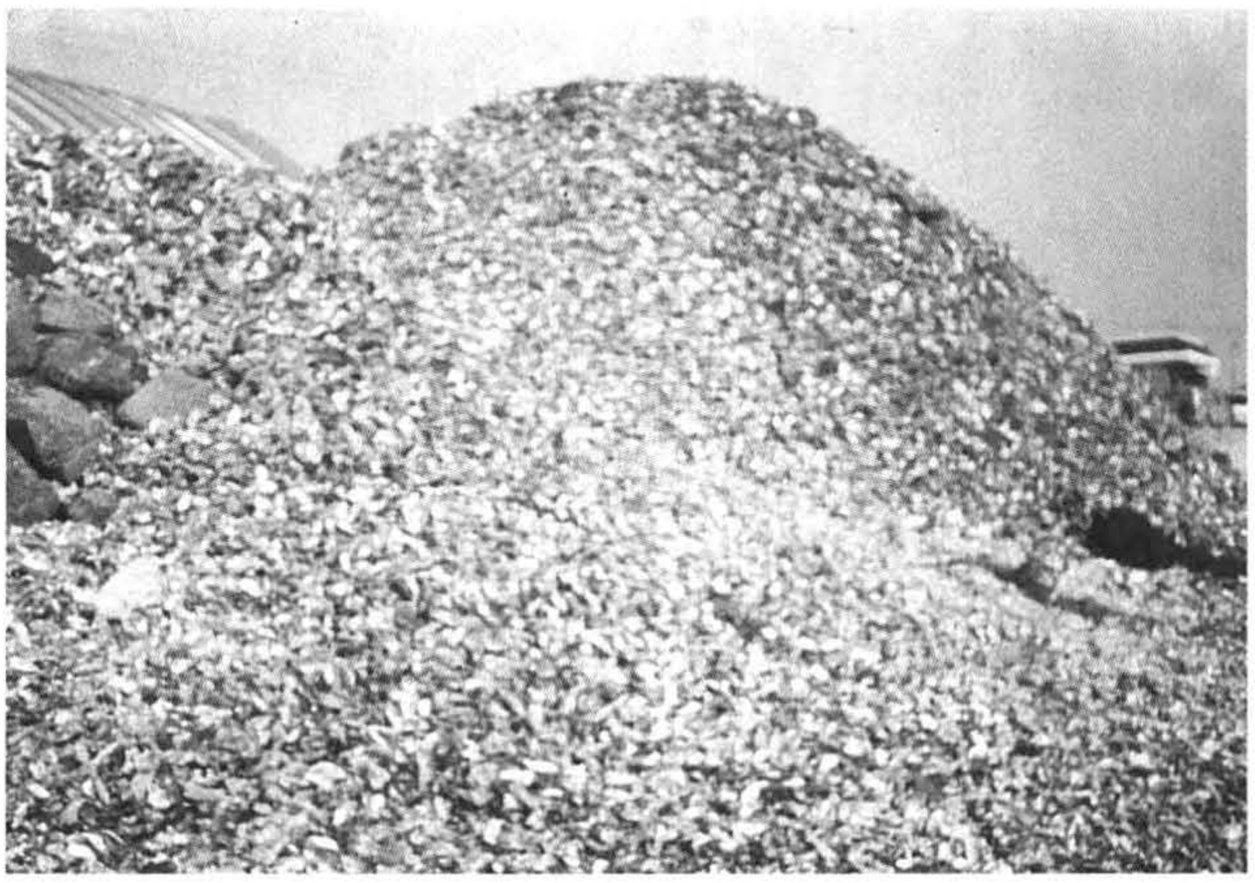
현재 수룡동의 47호 중에서 42호가 전적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머지 5호도 약간의 농업을 겸한 어업을 하고 있다. 실제로는 모든 가구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계절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봄에는 조개, 쭈꾸미, 도다리, 광어, 우럭 등이고, 여름에는 게 등이 잡힌다. 가을에는 오징어, 대하, 망둥어 등이고, 겨울에는 굴 채취로 소득을 올린다.

▲굴 작업을 하는 비닐하우스

▲조개를 까는 주민들(겨울)



▲굴무덤

▲굴을 까는 주민들

8. 수룡동의 변천사

수룡동에 언제적부터 사람들이 살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여러가지 문헌의 기록으로 보아서 대략 칠, 팔백년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룡동은 한때 상당히 번창했던 항구였다. 1969년부터는 판교항이라는 공식명칭과 함께 1종항으로 승격되어 정부의 투자도 활발했었다. 인근 해안에서는 최대의 안강망 어선을 소유한 항구로 발돋움 했었다.

하지만 항구 자체가 협소한 관계로 대형항구로 발전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대형 선박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문제라든가, 해산물의 유통 등에서 시설이 따르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대형선박들은 인천이나 군산에 가서 정박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선박 업주들이 타지역에 출장소를 두고 운영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70년대부터는 염장시킨 고기보다는 인조빙이 생기면서 냉동시킨 고기가 상품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수룡동으로 몰리던 어업원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기 시작했다. 그 뒤로 수룡동은 수산업 인구가 인근 항·포구로 이주해 가면서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3종 항으로 격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수룡동은 고기잡이와 함께 굴양식 등으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생계 터전을 잃게 될 운명이어서 안타깝기만 하다. 지금 홍보댐 건설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수룡동이라는 포구 자체가 없어질 운명에 놓여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이곳 주민들은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바다가 없어지면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련이 닥쳐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9. 수룡동과 역사적인 사건

수룡동에는 역사적으로 수군이 주둔하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성군지』(1994. 1. 3일 발행)에 의하면 수룡동은 조선조 때 선소(船所)와 선창이 있었고, 결성현의 수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군 주둔 시에 이곳 선창에는 방선(防船)과 병선(兵船), 사후선(伺候船)이 각 한척씩 있

었고, 수진군기고(水津軍器庫)와 집물고(什物庫)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삼별초 항쟁 당시에 결성현에 삼별초군이 침입하여 결성 감무를 잡아갔던 사건이 『홍성군지』와 『결성군지』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홍성의 전설과 효열』(구제기·김정헌 공저, 홍성문화원 발행, 1995)에는 당시 삼별초군이 착륙한 곳을 수룡동으로 기록하고 있다.

『홍성의 전설과 효열』에 실린 전설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 전략 —

삼별초는 경상도·충청도에까지 올라가서는 약탈을 감행하였지만, 누구 하나도 당당하게 막아서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잠깐 사이에 해변가의 수령들로부터 오히려 항복을 받아내면서까지 약탈을 일삼았다. 마침내 이 삼별초의 군사들은 원종 13년(서기 1272년) 9월에 지금의 서부면 판교리의 수룡구지에 나타났다.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 그들은 당시에 주둔하고 있던 원종의 수군마저 마구 죽여 버렸다. 그들이 이곳에서 수군들과 한창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의 일부는 다른 한편으로 홍주에까지 쳐들어가서 부사 이행검을 사로 잡았고, 결성으로 쳐들어가서는 감무를 잡아 배에 실었다.

수룡구지를 점령한 삼별초는 수룡구지 주민들로부터 그들의 양식을 원했다. 그러나 주민들로부터 단 한톨의 곡식조차도 구할 수 없었다. 삼별초 뿐이 아니라 그동안 바다 건너 왜적으로부터 이따금 약탈 당한 경험이 있었던 주민들은, 이미 양식을 산속 깊이 감춰놓고 있었던 것이다. 양식을 구하지 못한 삼별초는 그만 주민들을 해치려 하였다.

그러나 단결심 강한 주민들은 깜깜한 밤을 이용하여, 그들이 잠자는 시간에 밧줄을 끊어 버렸다. 배를 바다에 띄우고 횃불을 던져서 삼별초의 배에 불을 질러버렸다. 주민들이 괭과리를 두드리며 화살을 날리자, 삼별초는 잠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도 못한 채 도망갔다. —하략—

10. 수룡동의 민요

수룡동 주민들은 옛날부터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삼아 살아왔다.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할 때 불렀다는 배치기 노래가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배치기 노래

본당 선황님 구이 보소.
수룡동 일동이 만북을 비옵니다.
어하하~~ 오하하~~ 어헤헤~~

연평 바다에 돈실러 가세.
어하하~~ 오하하~~ 어헤헤~~
(구연자:민용복, 서부면 판교리 수룡동 거주, 71세)

▲민요를 구연하는 민용복씨

제 2 장 수룡동 당산 풍어제

1. 명칭:당산 풍어제

2. 신격:산신, 해신

3. 당집의 위치

당산 풍어제를 지내는 당집은 수룡동 포구가 내려다 보이는 마을 바로 뒷산 봉우리 부근에 있다. 당집에 올라서 앞을 보면 멀리 천수만 앞바다까지 훤히 건너다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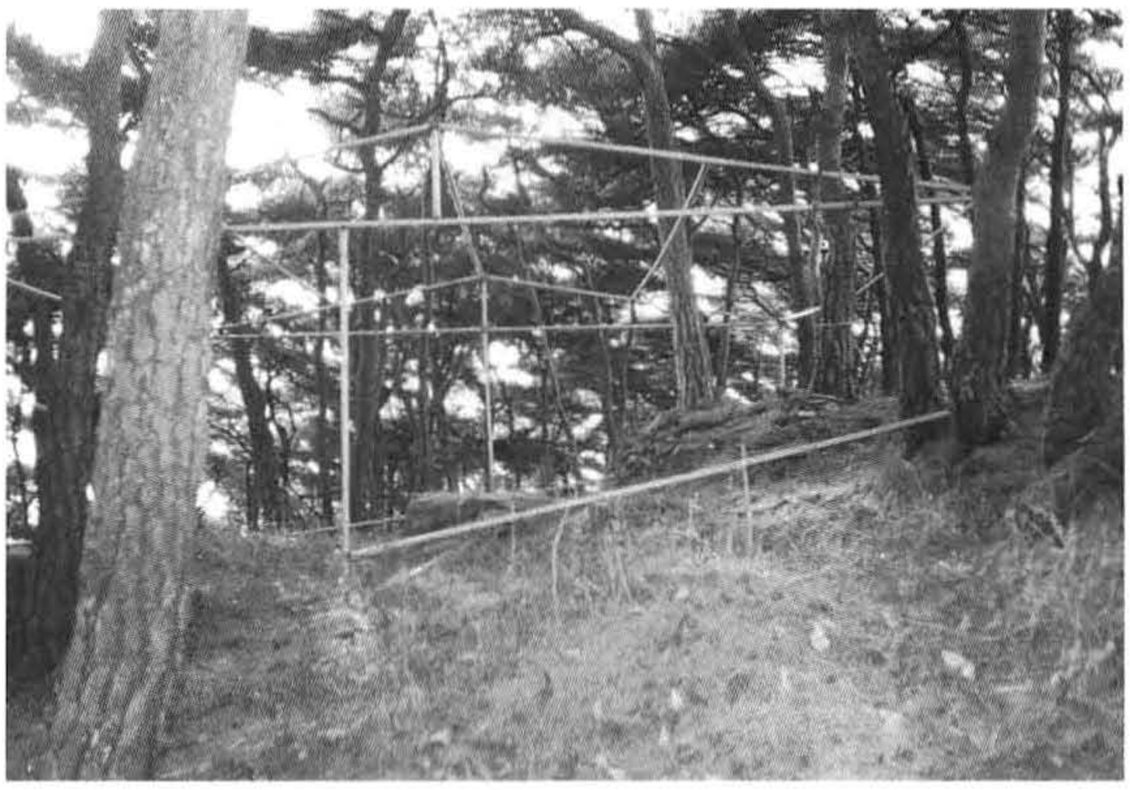
▲당산모습

4. 당집의 형태

당산 풍어제를 지내는 당집은 당산의 봉우리 부근에 위치해 있다. 건물은 없고 자연물로 되어 있다. 평평하게 땅을 고르고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 제단이 있는 곳에는 커다른 소나무가 몇그루 있는데 그 아래에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 제단 주변에는 크고 작은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당산 풍어제를 지내는 날은 포장으로 가건물을 설치해 놓고 행사를 치른다. 당집에서 모시는 신은 여신이다. 옛날부터 여신이라고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다.

▲가건물을 세운 당집



▲가건물을 세우기 전의 당집터

5. 제의 목적

당산 풍어제의 제일 큰 목적은 뭐니뭐니 해도 뱃길에서의 안정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옛날에는 소형 어선에 몸을 맡기고 바다로 고기잡이를 다니면서 마음 속으로 의지하고 기원할 대상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당산 풍어제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다. 지금도 마찬가지 목적에서 당산 풍어제를 지낸다.

요즈음은 당산 풍어제를 통해서 부락민들의 단결과 화합의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도 당산 풍어제를 이어나가고 있다.

6. 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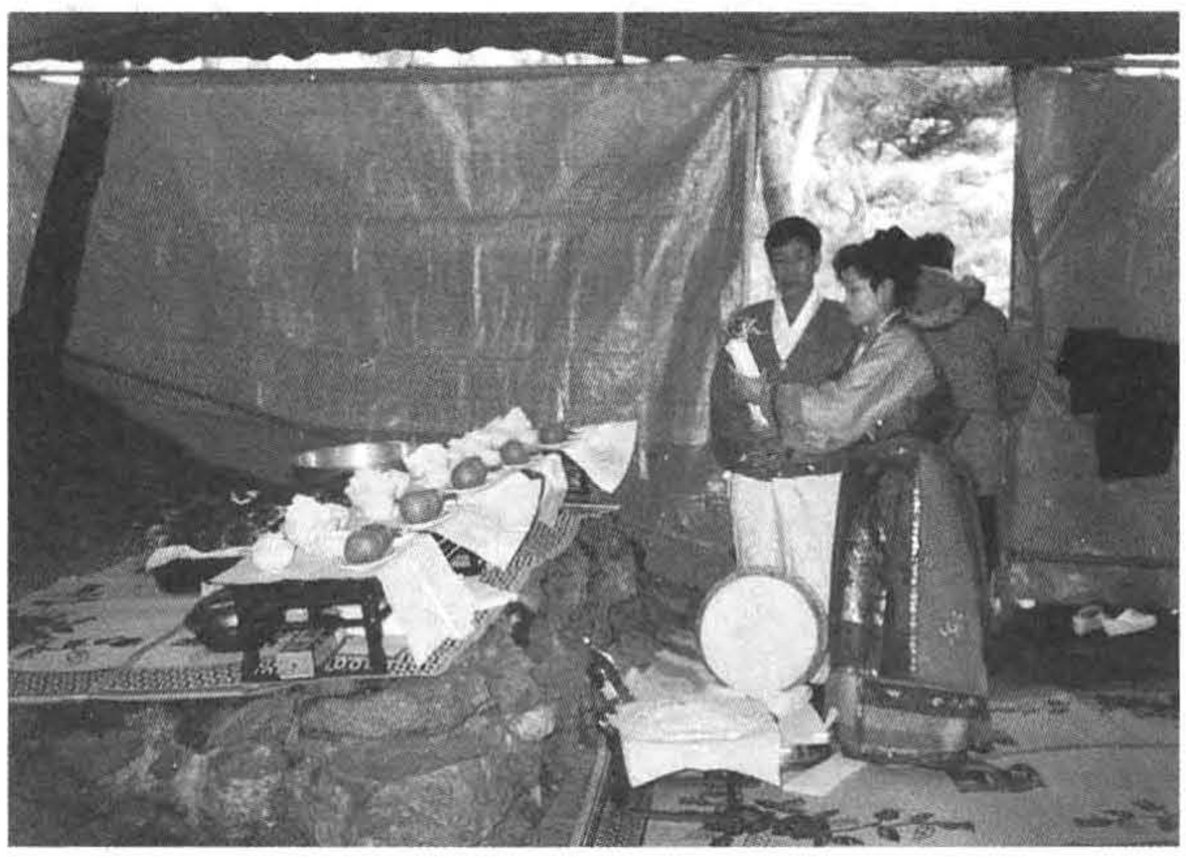
당산 풍어제는 해마다 음력 정월 보름날 지낸다. 지내는 시간은 아침 10시경부터 자정 무렵까지이다.

7. 제의 주관자

제관은 당주 한명을 뽑는다. 지금은 당주를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이장이 당주를 한다. 당산 풍어제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은 무당이다. 초청된 무당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행사를 주관해 나간다. 마을 이장은 제관으로서 무당과 함께 당산 풍어제를 보조한다.

옛날에는 당주로 뽑혀서 일년동안 마을에 큰 일이 없으면, 몇년 동안 계속 시키기도 했다.

▶당산풍어제를 주관하는 최경달 무속인



▲당산풍어제를 주관하는 이장 최복길씨와
무속인 최경달씨

8. 금기

당산 풍어제의 금기 사항은 일반적인 동신제와 비슷하다. 다만, 오전중에 당산에서 지내는 당제에는 여자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당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남자이다. 여자 참석자는 제를 주관하는 무당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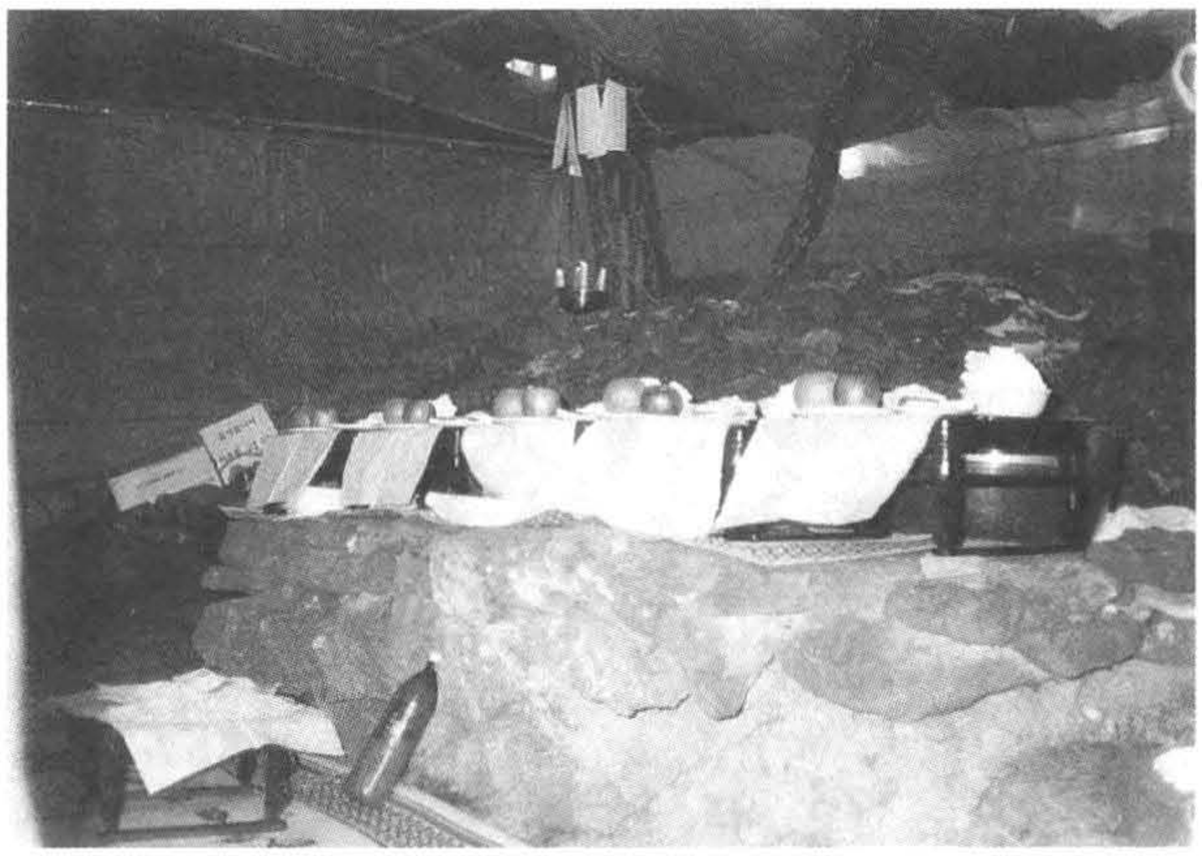
당주로 결정되면 당제를 지낼 때까지 부정한 곳에 드나들지 말아야 한다. 물론 부정한 행동을 해서도 안된다. 당주는 당제를 지내고서도 부정이 있는 곳에 1년동안 출입을 금한다. 지금은 이런 금기사항이 많이 완화되었다.

9. 제물과 제의 절차

당산 풍어제에 쓰이는 제물은 일반 제사에 쓰이는 제물과 비슷하다. 다

만, 대부분의 제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돼지머리는 쓰지 않는다. 돼지머리 대신 소머리를 사용한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소머리를 사용하고 있다.

제물은 다섯 몫을 차린다.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당각시, 산신, 지신 등을 위한 몫이다.



▲제물 모습

제의 절차는 음력 정월 초이튿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당제 모시는 회의를 한다. 이 회의에서 당제에 대한 모든 논의를 한다. 지난해 당제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반성해 본 다음에, 당제에 들어갈 비용과 책임 맡을 임원을 배정한다. 당산에 올라가는 길을 닦는 사람, 상당에 임시 천막을 치는 사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올 사람 등을 정한다.

열사흗날이 되면 책임 맡은 임원들은 각자 정해진 곳으로 가서 임무를 수행한다. 열나흗날에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음식 장만을 한다.

보름날 아침에는 떡을 하고 제물을 차려서 열시경부터 행사를 시작한다.

행사의 절차는 오전, 오후, 저녁 행사등 모두 3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오전 행사는 10시에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시작된다. 마을회관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무당이 일석을 한다.(징을 한번 치고 비선을 함). 무당의 일석과 함께 마을 기를 앞세우고 상당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부정풀이를 한다. 그리고 마을을 위해 무당의 축원이 계속된다. 무당이 축원을 하는 동안에 선주와 방문객들이 찾아와 제단에 재배를 하고 축의금을 놓고 가기도 한다. 무당의 축원은 오전동안 계속된다.

▲오전행사에서 축원하는 모습▼

정오 경에 오전행사를 끝내고 마을회관으로 내려와 점심식사를 한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오후 행사를 시작한다. 오후 행사는 2시경부터 선주들이 당산 신령님으로부터 복 받는 행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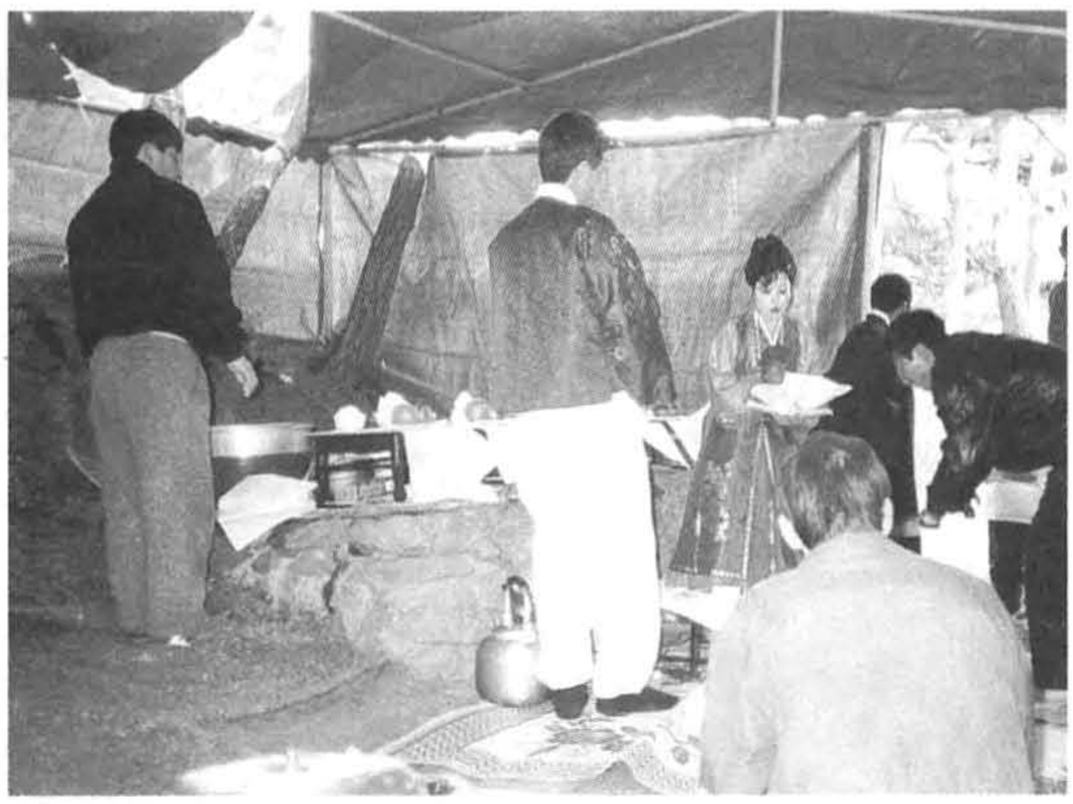
마을 이장은 선주들의 명단을 한명씩 호명한다. 호명을 받은 선주는 제단 앞으로 나와서 약간의 돈을 찬조하고 절을 한다. 이때 무당은 선주를 위해 축원을 하며 소지를 한장 올려준다.

그 다음에 무당은 선주에게 술을 한 잔 따라 준다. 이 술잔을 복잔이라고 한다. 무당은 당산의 산신령님을 대신하여 술잔을 선주에게 따라주는 것이다. 선주는 무당이 따라준 술을 마신다.

선주가 술을 마시고 나면 무당은 공책만하게 접은 창호지를 한장 준다. 이것을 길지(吉紙)라고 한다. 무당은 길지와 함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점을 같이 준다. 이 길지는 산신령이 복을 내려주는 종이이다. 이 길지는 당

제를 끝내고 내려가서 개인적으로 뱃고사를 지낼 때 깃발에 매어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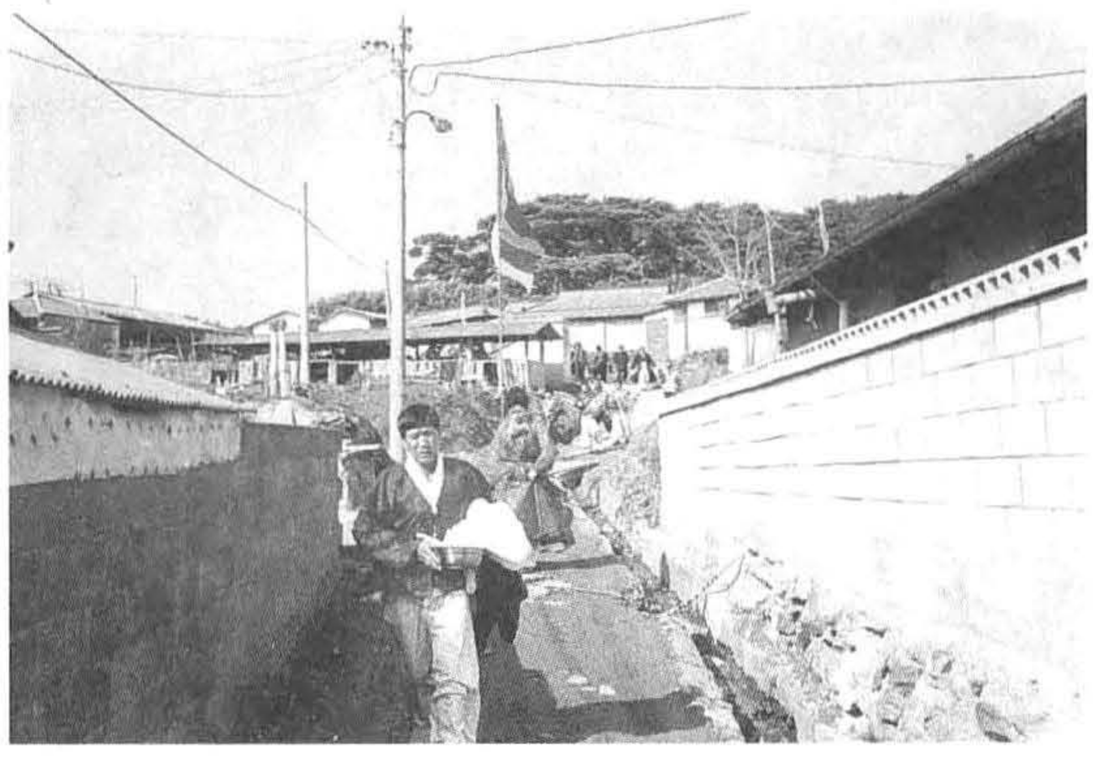
선주들의 복을 받는 행사가 끝나면 잠시동안 제단 앞에서 농악을 치며 마무리를 한다. 내려올 때는 마을 기를 앞세우고 농악과 함께 내려온다. 제단 바로 아래로 내려와서 마을 기를 세워놓고 무당이 잠깐동안 축원을 한다. 이것은 당제를 무사히 마치고 내려간다는 인사이다.



▲오후행사에서 길지를 받는 선주들

▲길지를 받는 선주들▼

▲하신행사 모습▼



▲하산하는 모습

마을 회관으로 내려온 일행은 해산 행사를 한다. 해산 행사는 마을기를 세워놓고 개인축원을 한다. 호명하는 대로 한사람씩 나와서 마을기를 붙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무당이 축원을 해준다. 이렇게 개인축원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후 행사를 끝낸다. 개인축원을 끝낸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뱃고사 준비를 한다.

▲해산행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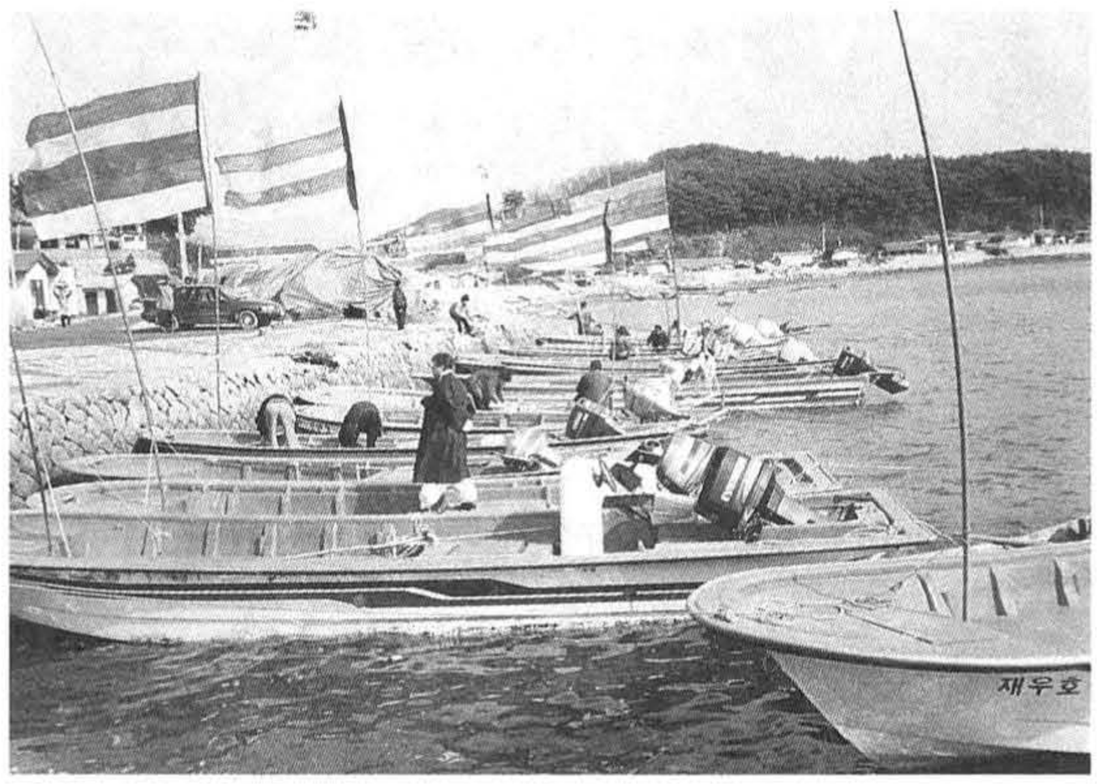
◀해산행사 모습

뱃고사는 각자 배에 간단한 제물을 차려 놓고 지낸다.

뱃고사를 지낸 사람들은 서로 옮겨 다니며 술과 음식을 나눠먹기도 한다. 어떤 선주들은 뱃고사를 끝낸 후에 배를 타고 앞 바다를 한바퀴 돌기도 한다.

옛날에는 아침에 당산에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면서 선주들의 배에 꽂는 오폭기도 같이 갖고 올라갔다고 한다. 올라갈 때는 나이 순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올라가서 당산 나무에 걸어 놓았다. 그리고 당제가 끝나고 내려올 때는 역순으로 내려왔다. 당제가 끝나고 선착장까지 질서있게 내려와서 끝내는 신호와 함께 해산을 했다. 안강만 어선이 많을 때는 내려오는 순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투기도 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려고 순서대로 올라가고 내려왔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생략하고 마을기 하나만 갖고 올라간다.



▲뱃고사 모습들▼

▲뱃고사 모습들

▲뱃고사 모습들

▲뱃고사 모습들

▲뱃고사 모습들

▲뱃고사 모습들

저녁 행사는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밤 7시경부터 시작한다. 무당이 선착장 부근의 마을 앞에서 제물을 차려놓고 거리굿을 한다. 거리굿은 마을에 들어오는 액운을 미리 막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궂으면 임시로 지어놓은 가건물 안에서 거리굿을 하기도 한다.

거리굿이 끝나면 무당은 사살막이를 한다. 이 사살막이를 퇴식(退式)이라고도 한다. 퇴식은 복숭아 나무로 만든 화살에 곶감이나 기타 음식을 꽂아서 바다를 향새서 쏘아 보낸다. 이것은 바다 쪽으로 들어오는 액운을 막아 없앤다는 뜻이 있다. 화살에 꽂은 음식을 먹고 잡귀들이 물러가라는 뜻이다. 그리고 활로 위협해서 잡귀가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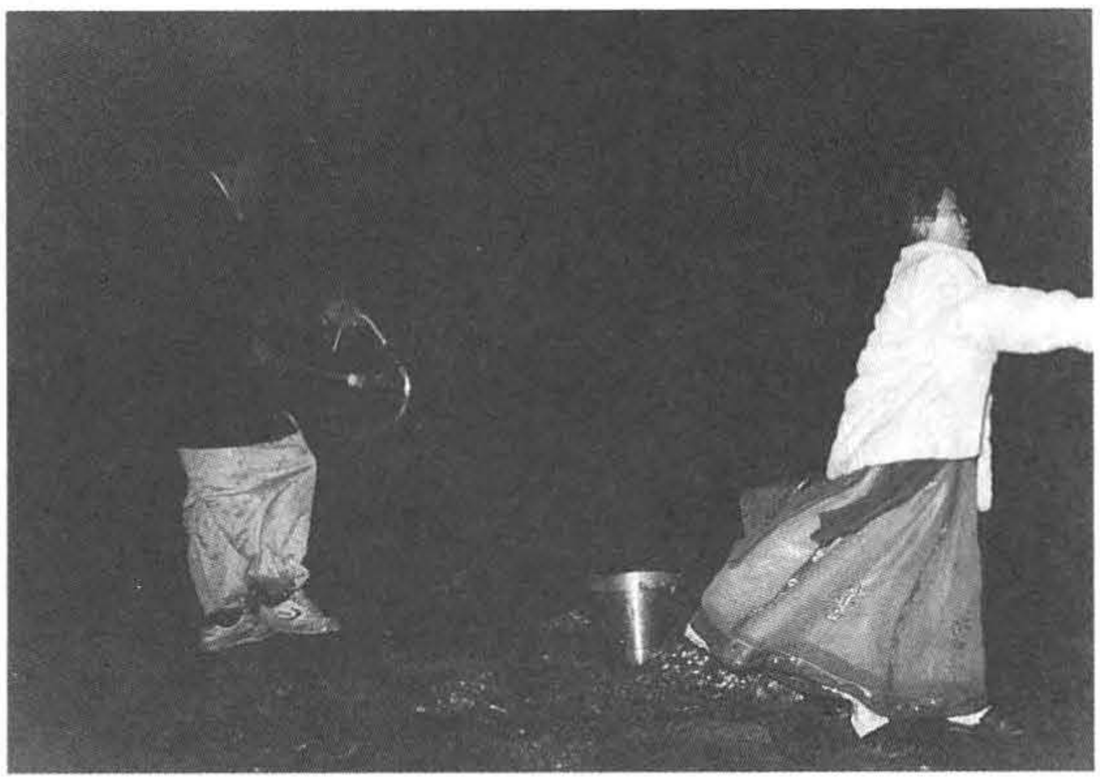
퇴식이 끝나면 약간의 음식을 차려서 마을로 들어오는 삼거리에 가서 간단한 거리제를 지낸다. 이것은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잡귀를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여 저녁 행사를 끝낸다. 저녁 행사가 끝나면 밤 열한시 경이 된다.

▲저녁행사에서 거리굿을 하는 모습

▲퇴식(사살막이)을 위해 바닷가로 나가는 모습

▲퇴식모습

▲퇴식모습



▲퇴식모습

▲퇴식모습

▲퇴식모습

▲퇴식모습

▲마을입구 삼거리에서 거리제 모습

10. 제의 비용과 결산

당산 풍어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백여만원 정도가 된다. 비용은 배 한척당 만원씩 낸다. 배가 없는 사람은 오천원씩 낸다. 옛날에는 큰배는 이만원, 더 큰 배는 삼만원도 내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소형배이기 때문에 만원씩 낸다. 그리고 당제 당일에 들어오는 축의금 등으로 비용을 충당한다.

비용의 결산은 다음날 이루어진다. 당제에 들어간 모든 비용과 들어온 축의금 등을 결산하여 보고한다.

▲마을회의를 하는 주민들

11. 마을 사람들의 신앙 태도

수룡동 사람들은 당산 풍어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적인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

또한 당산 풍어제를 계기로 마을 모두가 화합하고 단합하는 시간을 갖는다. 저녁에 모든 행사를 끝내고 마을 회관에 모여서 남녀노소가 어울려 한바탕 노래로 화합을 다진다.

앞으로 수룡동 앞 바다가 없어져서 일터를 잃게 되더라도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 차원에서 당산제 만큼은 계속 이어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

12. 유래

당산 풍어제의 유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이곳에 마을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면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제 3 장 당산 풍어제와 수룡동의 장래

지금 수룡동은 포구 자체가 없어질 운명을 맞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룡동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룡동 주민들은 마을 앞바다를 막아서 얻을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협소한 앞 바다를 막아서 얼마나 많은 농경지가 나올지 의문이다. 바다를 농토로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의 뻘과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의 수입이 몇배 많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또한 이곳 바다가 담수호로 변했을 때, 수질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인근 육지에서 밀려오는 오·폐수가 호수를 오염시키면,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수룡동 주민들의 바람은 두가지이다. 가장 큰 바람은 수룡동 바다가 그대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사를 멈춘다면 생활터전을 잃지 않고 수룡동 포구는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바람은 기왕에 계획된 국가사업을 계속하려면, 보상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앞바다는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젖줄이다. 이 생활터전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달라는 바람을 갖고 있다.

수룡동의 당산 풍어제는 1970년대에 가장 풍요롭게 지냈다. 그 당시는 수룡동이 1종 항구로서 상당히 번창하던 시대였다. 그후로 수룡동이 점점 쇠퇴의 길로 들어서면서 당산 풍어제도 규모와 절차에서 많이 간소화 되었다.

지금까지 수룡동 당산 풍어제는 수룡동 마을을 지켜주는 신앙이며 마을을 화합시키는 축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만큼 이곳 주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당산 풍어제를 계승시켜 오고 있는 것이다.

수룡동 주민들은 앞으로도 당산 풍어제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1999년 초에는 마을 대동회의에서 당산풍어제를 문화재로 지정 받자는 결의를 하기도 하였다. 추진위원회(위원장 한만호씨)를 구성하여 홍성군청 등에 건의도 했고, 당산풍어제의 미래를 설계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마을의 미래가 불안하듯이, 당산풍어제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수룡동의 당산 풍어제를 계속 지키고 이어가겠다는 마음만은 철철 넘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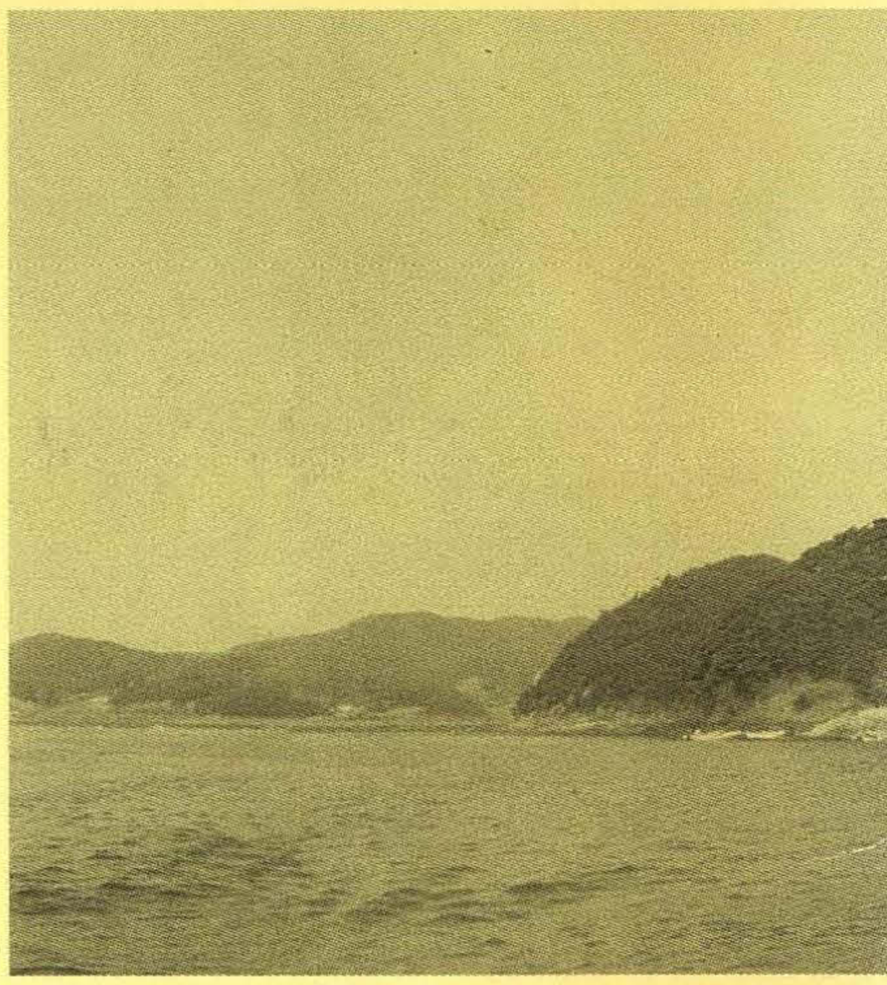
▲한만호씨

▲정찬한씨

▲김관은씨

수룡동 당산풍어제

· 인　　쇄　1999년 12월　　일
· 발　　행　1999년 12월　　일
· 저　　자　김정헌
· 발 행 인　이하영
· 발 행 처　홍성문화원
350－807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전화 (041)632－3613/634－9659
팩시밀리 (041) 632－1199
· 인 쇄 처　조양인쇄
350－807 충남 홍성군 홍성읍 124
전화 (041)632－2363/634－7856



▲수룡동 전경